

# 광주시 공무원들 '지역경제 살리기' 나섰다



## 전남일보 소상공인 살리기 캠페인

계엄·탄핵사태 소비 침체 심각  
24일·27일 시청 구내식당 휴무  
내년 1월 상생카드 할인율 확대  
시·자치구, 릴레이 소비촉진 전개

광주시 공무원들이 '12·3 계엄·탄핵 사태'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구내식당 휴무, 릴레이 소비촉진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심시일반 힘을 모으고, 소비진작 분위기를 확산을 통해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로 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4일과 2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근 식당 이용하는 날'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4일과 27일 이들 간 점심을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는다.

이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민생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기존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구내식당 주 2

회(수·금) 석식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촉진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등 주요 기관·단체 등과 함께 한다.

광주시는 24일 송정역에서 릴레이 캠페인 첫 주자로 나선다. 이후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등에서 5개 자치구, 공공기관 등이 분위기를 이어간다. 캠페인에는 광주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 소비자단체 회원들도 참여한다.

광주시는 내수경기 침체 속에 예기치 못한 비상정국까지 겹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영의 어려움을 알리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촉진 운동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 광주공공배달앱 및 상생카드 이용하기 운동도 병행한다.

광주시는 지역 내 소비 진작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연말연시 소규모 행사·모임 시 소상공인 식당 적극 이용을 권장하고, 전통시장 장보기·지역 상점가 제품 구입하기 등에 나선다.

광주시는 강기정 시장이 행정의 최우선



정부와 지자체 등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모임과 회식 등을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광주 동구 동명동 일대에서 시민들이 저녁 모임 등을 갖기 위해 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과제로 민생안정을 주문함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광주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5개 자치구와 예산 100억원을 긴급 투입, 2025년 1월 한달간 상생카드 할인율 10% 확대 시행한다.

또 지자체 주관 축제·행사 등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광주공공배달앱 연말 특별 할인프로모션 등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조기추경과 확장재정을 통한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요구하고 등 민생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 시장은 "광주는 어려울 때 나눴고 연대의 정신을 실천해온 도시"라며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은 민생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위기 극복에 마음을 모아 달라. 광주시는 민생을 키우고 돌보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 '1030세대가 주도하는 탄핵집회'

1면서 계속 5·18 당시 항쟁에 참여했던 흥기월 광주시의원은 "오월을 겪지 않은 이들이 응원봉·재치있는 깃발 등으로 이 정국을 해체나가는 모습에 충격받았다. 기성세대로서 많은 경중이 됐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나눔·돌봄의 오월정신이 신세대로 전해진 것 같다. 자기 권리가 침탈되는 것에 대한 분노를 굉장히 평화적으로, 서로 도우며 표출했다. 미래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감이 드는 집회였다"고 말했다.

박상희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는 "탄핵 집회의 주역인 1030세대는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세월호·이태원 참사를 겪었던 세대"라며 "묵혀뒀던 절망·불안감이 이번 내란사태로 분출됐다. 과거 4·19 혁명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확산했듯이 이

번 정국도 젊은이들의 움직임에서 정치·사회 지형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모인 시민들 중 1030세대, 특히 여성들이 많았다"며 "이들은 차별·억압 등 속칭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불평등 사회에 대한 불만이 높다. 어쩌면 새로운 정치·정권의 등장을 가장 바라는 세대가 아닐까"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하는 등 탄핵심판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는 젊은 층의 분노를 확산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태극기부대 등은 내란 주동자를 옹호하기보다 '내란 수괴 배출 세력'으로서 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미래를 위해 잘못을 인정하고 민의에 따른 혁신·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 김 지사,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건의

### 직류송전·변전소 필요성 역설 민생경제 종합대책 협조 요청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20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전현희 국회의원을 만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에너지고속도로 등 지역 핵심 현안과 민생 회복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에 대해 세계적 추세인 재생에너지100(RE100)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요건을 갖춘 신안 해상풍력 단지가 집적화단지로 조속히 지정되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화두인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



김영록(오른쪽) 전남도지사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만나 주요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와 관련해서도 "전남도가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전력공급 문제로 신규 투자가 지연되거나 입주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초고압 직류송전 시스템과 변전소 345kV급 변전소 2곳 신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적용을 위한 지원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리적 인접성 기준이 아닌 전력 자급률 기준에 따라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구 감소지역에 최대 20% 전기요금 할인 특례 부여를 제안했다.

계엄선포로 더욱 어려워진 민생과 관련해서는 전남도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1185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소개,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오지현 기자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 어린이집 · 유치원 · 한옥 내 · 외부 · 방바닥 · 전원주택 · 경로당 · 아파트 · 펜션 · 찜질방 · 카페 · 휴집
- 외벽 · 목재 · 양어장 · 물탱크 · 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엄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태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